

“韓國齒政會” 정식 출범

• 초대회장에 金東順氏 선출

• 齒界 현안문제 해결과 권익보호활동등 다짐



韓國齒政會가 정식으로 출범했다.

1988년 7월 20일 발기인대회를 가진바 있는 한국치정회는 지난 2월 25일 타워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총회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규약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한편 이 규약에 따라 初代會長에 金東順氏를 選任했다.

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진행된 창립총회에는 金영삼민주당총재, 권영길의정회장, 양정강齒協 부회장, 金모임看協회장등 외부인사와 치과의사 30여명이 참석했다.

창립총회는 또 부회장에 김현풍(서齒회장·자동직) 文洪祚(前 치협부회장) 盧지섭(前전남지부장) 김현구(前경북지부장) 金유봉(前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) 金원우(前부산지부장)씨를 선출하는 한편 감사에 金기혁(前 齒協부회장) 李재현(단국치대학장)씨를 선임했다.

이날 확정된 「한국치정회규약」은 ▲임기 3년으로 하는 임원은 회장·부회장(6명)·상임위원(기획·조사·제정·홍보·섭외·연구) 감사(2명)등 15명으로 하고 ▲1백명이내의 「중앙집행위원회」는 임원 15명·치협부회장 4명·치협이사 11명·치협지부장 17명·치협의장단 2명·치협감사 3명등 당연직 외에 중진회원중에서 선출하여 구성토록 했으며 ▲중앙 집행위원회」는 회장단·감사단의 선출과 사업계획·예산·결산 등 주요사항을 처리토록 했다.

또 ▲총회는 치협 대의원총회장소에서 개최하며 ▲치협 지부장과 분회장이 자동직 지부장·분회장을 맡도록 하고 ▲연회비는 3만원으로 규정했다.

한편 초대회장에 피선된 金東순회장은 치과계의 길잡이로 정평이 나있는 원로급으로서 치



〈한국치정회 창립총회 광경. 원내는 초대회장 金東순씨〉

과제에서 신망과 덕망을 가장 많이 받는 人物中的 하나이다.

여러가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재의 치계로서는 조직적인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金회장은 “치협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현안문제를 파악해 우리 치과의료인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고, 권익보호와 신장에도 한몫하는 會활동을 펴겠습니다. 이회는 꼭 필요해서 만든 단체이니만큼 절대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”라고 취임소감을 피력했다.

金회장은 현재 ▲보사부의 치무행정담당부서의 설치 ▲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문제해결 ▲의보 수가의 현실적인 상향조정 등이 치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의 실현은 한두사람의 힘이나 조직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하며 단결된 힘만이 목적인바를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.